

해외건축동향.

글. 김은미_ Kim, Eun-mee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American Folk Art Museum exterior

아메리칸 포크 뮤지엄

American Folk Art Museum

아메리칸 포크 아트 뮤지엄(American Folk Art Museum)이 확실히 비운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인내의 시간을 디자인에 녹여 견고함으로 시공한 이 작품이 곧 철거 먼지와 함께 기억 속으로 사라지게 될 예정이다. 안타깝게도 이 건축의 생애주기는 심지어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매장보다 짧게 되어 버렸다.

이 상황은 도시의 영속성, 기억, 그리고 공간적 특성에 대한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만일 이 포크 아트 뮤지엄이 뉴욕이라는 도시에 지어지지 않았다면,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을 하며 계속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정면과 슬롯(갈쭉하게 끼워 넣게 생긴 대지 모양)의 상황적 특징을 가진 뉴욕 시에서의 스트리트는 일반적인 외부의 통행을 위한 길이 아닌 스트리트 자체가 거대한 인테리로서 그 안을 거니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이 특성을 무시한 예로 웨스트 53가의 메가 스케일 상업 시설 비전이 이러한 뉴욕 거리의 특성을 잃게 만드는 일을 초래한 것을 떠올릴 수 있겠다.

건축 비평가 Paul Goldberger는 베니티 페어를 통해 “지어진지 겨우 12년 남짓 된 건축물을 없애버리는 것을 허락한 이 도시는 그 건축적 자존심에 흠결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건축물에 알맞은 용도를 찾아 주지 못한 거대한 문화 기관은 건축적 상상력에 결함이 있는 기관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Tod Williams와 Billie Tsien(아메리칸 포크 뮤지엄을 설계한 건축사)가 매체를 통해 밝힌 심경은 감성을 울린다. “아메리칸 포크 뮤지엄은 주변 환경의 패브릭과 대응하며 적절하지만 동시에 비범한 건물을 창조하기 위한 방향으로 디자인을 하였다. 이 휴먼 스케일의 독특하게 제작되어진 이 건축물이 철거가 된다는 것은 뉴욕 시에게 손실이며, 이것은 미드타운 지역 내의 스케일을 존중하는 특성과 다양성, 그리고 각 각 다른 빌딩 간의 조화가 없어지게 하고 더욱 통일화 시키는 위험을 갖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한 건축인은 Dezeen을 통해 반대 의견을 냈다. 그녀는 건축은 노후화의 원칙에서 예외라고 믿는 오래된 감성이 있다며, 건축은 노후화 설계를 중심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요즈음 무어의 법칙의 기능이 더욱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며, 기술의 발전은 기하급수적으로 더욱 작고 더욱 강력한 것을 얻게 하였다고 논쟁을 펼쳤다.

하지만 건축의 경우는 컴퓨터 기술에 의거한 무어의 법칙에 바로 대입하기는 힘들다. 만약 어떤 건축물을 다른 건축물을 넣기 위해 빼고 교체 한다면 원래 있던 것을 대체한 그것은 컴퓨터와 달리 더욱 커지고 소모적이 된다. 포크 뮤지엄이 더욱 작고 더욱 강력하지만... MoMA의 이사회나 Diller Scofidio + Renfro의 영향력 보다는 작아 보인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 건축사들은 MoMA(숭상 되지만 복잡한 성격을 지닌)라는 기관의 시선에서 아메리칸 포크 뮤지엄 건축물의 위상이 사라진 것을 애석해 한다. 건축사들은 지금은 MoMA의 결정을 애용해하고, 곧 이 건물의 사라짐을 애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다. 사실 뉴욕 시는 이 상황을 더욱 널리 알려지게 하는 동시에 하지만 이 상황을 더욱 평상시와 같이 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지역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심지어 아메리칸 포크 뮤지엄이 무엇인지 또는 존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 건물은 발견될 사항으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겨우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의 껍데기일 뿐일지라도 찾아 질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거리를 걸을 때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이 뮤지엄은 단조로운 동일함의 그리드 속에 다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작은 특별한 포인트이며 사람들은 멈추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정도의 가치로는 블룸버그 사장 이후의 뉴욕시의 부동산 가치 상승의 압력을 붙잡을 수 없었고, 뉴욕 시는 광란의 개발 열풍 속에 주기적인 일을 스스로 해 가야 했다. 그리고 MoMA는 오랫동안 그 블록의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중이었다.

부동산 개발 논리, 자본주의 논리에 의한 개발,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해서 놀랍지도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American Folk Art Museum에 까지 미치는 것을 보니 사뭇 충격적이기도 했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만큼 빨라지는 우리의 사회의 속도가 우리의 도시와 생활 등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며 무수한 기억을 빠른 속도로 지워내고 있다. 물론 동시에 그 만큼 빨리 무언가를 생상해 내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점점 어떤 존재와 기억을 마음속에 까지 담아 두기에는 힘들어지는 속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건축인으로서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하게 한다. 

※ 위 글은 <http://www.archdaily.com> 글의 일부를 발췌, 인용하였습니다.